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홀트가족나눔교육>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통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홀트가족나눔교육>은 공감, 자존감, 소통, 가족교육, 가족공동체 5가지 인성덕목을 나누어 교육하고, 패밀리메이커 교육으로, 입양에 대한 반 편견 교육에서 출발해서 가족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이후 인성덕목들이 확장 되었습니다. 14년부터 체계화되어 강사들이 파견 교육하고 있다.

■ 기관개요

기관명	홀트아동복지회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조직형태	사회복지법인
설립연도	1955년
대표자	말리홀트
가치	사랑을 행동으로 :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한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 : 자랑스러운 더 큰 가족 가슴 벅찬 홀트
단체주요활동	입양, 아동/청소년복지, 미혼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 영유아복지
온라인	https://www.holt.or.kr/
문의	02-331-7143 (나눔협력팀)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홀트가족나눔교육
주제	나눔교육, 인성교육
목적/목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의식을 고취하는 착한 인성교육 제2의 해리홀트 같은, 가족이 되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1. 나눔교육 : 나눔의 개념과 이유를 알고 나눔의 다양성에 대해 알게 됩니다.</p> <p>2. 자존감교육 : 자존감을 통해 자기자신을 알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돕습니다.</p> <p>3. 소통교육 : 언어와 비언어, 사랑의 언어 등 상대방과의 소통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p> <p>4. 공감교육 :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알게 하여 나와 상대방에 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p> <p>5. 가족공동체교육 :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합니다.</p> <p>1회차 교육(커리큘럼 5개를 2차시로 나누어 진행됨) 2시간 소요 (가족에 대한 이미지 찾기,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모습알기, 가족개념을 친구까지 확장,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 따뜻한 숙제 - 홈페이지에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기록해서 올리면 봉사시간 제공</p>
참여방법	인터넷 사이트, 교육청 교육기부사이트 교육신청 → 담당자 통화 → 강사파견 → 교육피드백 서울, 수도권, 대구, 부산 교육진행
참여대상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급(※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이상), 성인 - 인성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30명 이상 권장), 전교생 강당교육, 기업 및 교회 교육 가능
참여형태	나눔활동기록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30 명
연간참여학생수	년 평균 150~200회 교육, 대상 청소년 일반성인 6~7000명
성인멘토	<p>14년부터 강사파견, 홀트 내 나눔교육 강사 인력 16~20명 나눔교육강사 서류심사 후 면접, 강의 시연 절차로 선출, 일반강사 전문강사 책임강사로 나누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강사비 지급, 강사역량강화를 위해 반기마다 봉사활동, 홀트 교육 및 외부강사 강의, 올해부터는 '강의력 증진대회' 열 예정임.</p>
예산규모(연간)	홀트 기부담 100%, 예산공개 어려움, 주로 강사비, 운영비 지출

나눔교육을 만들게 된 계기는

채성현 나눔협력팀 담당자는 처음 가족나눔교육을 홀트에서 처음 만들고 지금까지 담당해오고 있다. 사회복지가 아닌 경영학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NGO관심 갖고 활동하다보니 쏟아 붓는 돈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고, 현장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있었다.

가족이 가족 될 수 있다면 사회문제가 모두 없어질까라 생각한다. 그건 홀트의 사명이자 담당자 본인의 사명이기도 하다.

홀트의 가족관은 혈연에 의한 것만이 가족이 아니다. 영화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을 통해 가족이 뭘까를 고민했고, 전성실 선생님과 함께 나눔교육을 만들면서 결국 사랑이 있으면 가족이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홀트에서 보는 나눔이란

홀트의 가족나눔교육은 가족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교육, 공동체, 필란트로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나눔 교육보다 인성교육에 더 포커스가 있는 듯 하나 큰 틀은 나눔 안에 들어있다고 보여진다.

홀트에서의 나눔은 자선과 봉사 이상이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본다.

가족 안에서 출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눔이 되는 관계, 그것이 학교, 지역사회, 세계로 나아간다고 보고, 세계의 나눔보다 가족 안에서의 나눔이 가장 우선시 된다.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여자 정보고에서 교육을 듣고 후원을 시작한 아이가 있어, 소식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면서 한부모 장애인 엄마를 둔 삼남매 중 한명이었다.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만원 중 5만월을 후원. 이에 홀트에서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청소년 장학금을 줬었고 그 장학금의 일부를 다시 후원하기도 함. 나눔 교육에서 미혼모에 대해 처음 들었고 가족의 중요성 나눔의 중요성을 알고 나눔 활동가로 활동했었는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유류품에 버킷리스트에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있어서 너무 속상했었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이다.

청소년대상 교육 시 느끼는 한계는

초중학교에서 요청이 많아 나눔교육은 주로 초중학교 대상이다.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 따른 타인에 대한 관심 없는 것을 한계로 본다.

고등학생 경우 지식은 많으나 철학이 없고, 사회문제나 나눔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성취를 이룬 이후에도 개인의 성취가 중요하지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 대기업에서는 나눔교육을 위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다시 질문 한다 어떤 것이 기업의 목표인가? 개인의 목표인가? 부의 축적이나 기업의 이윤추구가 대부분이다. 나눔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결연이나 후원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인문학교육이 대두하니 돈이 되는 인문학,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문학을 찾아내서 그것만 취하는데, 나눔교육이 최고의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눔교육을 듣고 딱 한명이라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 한명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눔교육을 한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더 많아진다면 그게 희망이지 않을까 싶다.



가족나눔교육의 효과성이나 목표대비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횟수 기록하고, 사전사후 설문지 진행하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양적으로 주로 평가하고, 성과측정은 그걸로 끝이다. 설문지도 아이들이 대충하거나 외부에서 와서 관대하게 쓰는 것 같다. 기관에서 우리 교육을 다시 불러주는 것, 개별 사례를 만날 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담당자로서의 고민은

부모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을 위한 노래나 동화를 제작하는 것을 해보고 싶고, 유아교육은 강사가 가지 않고 부모들이 보고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듯한데, 담당자가 혼자라 늘 여건이 되지 않는게 아쉽다. 전담팀이 있다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텐데 아쉽다.

향후방향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고자 함. 늘 전년대비 횟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횟수는 줄더라도 강의안을 디테일하고 더 잘 만들고,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강의력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인터뷰이 • 홀트아동복지회 **채성현**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